



시인의 눈빛에 담은 정겨운 색채

《한국을 대표하는 빛깔》
펴낸 최승범씨

시작하는 새색의 연록 빛깔에는 한여름의 질푸른 신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순수'가 깃들어 있어 눈과 마음을 맑게 한다고 속내를 비친다.

그래서일까. 빛깔들을 창(窓) 삼아 세상을 내다보기 시작한 지 2년,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진 까닭에 낮에만 글쓰는 작업을 해왔다는 저자의 눈에 비쳐든 색채는 여느 빛깔보다 오히려 다채롭고 선연하다.

“우리 빛깔에 대해 품고 있는 제 정을 담아본 것 뿐입니다.”

소탈하게 웃어보이는 저자는 요즘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고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누각이나 정자에 걸려 있는 편액의 시문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미 집필에 들어갔고 내년쯤에 책으로 묶게 될 듯하다고 밝힌다.

—한동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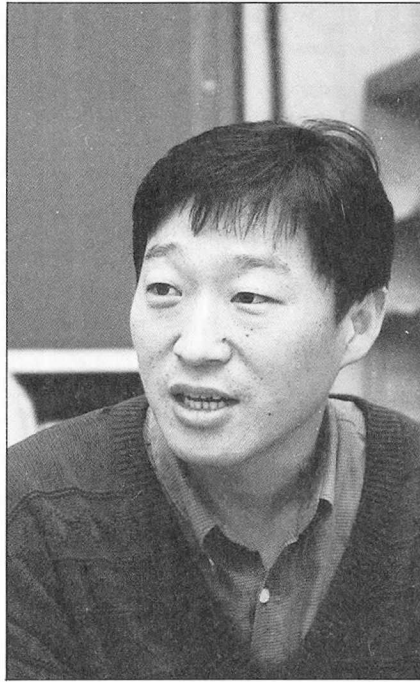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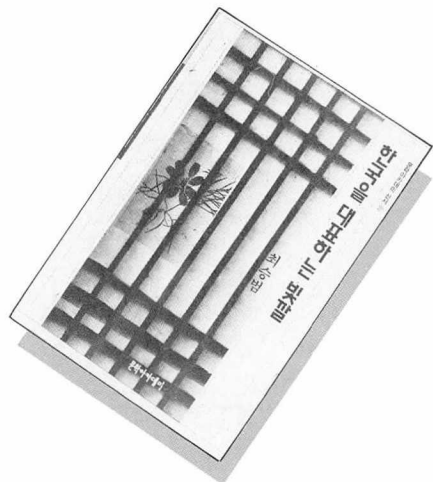
누런 황토흙을 볼 수 없게 된 지는 얼마나 됐을까. 즐겨 입던 흰옷들도 화학염료의 보급으로 사라졌고 퍼머머리에 밀려 옥빛 비녀는 골동품상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됐으며 비온 후에는 오색 찬연한 무지개조차 좀처럼 뜨질 않는다.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곁에서 하나 둘 사라져가는 빛깔들이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빛바래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사라져가는 빛깔들을 수필집 《한국을 대표하는 빛깔》(문학아카데미)에 담은 저자는, 그 빛깔들이 함축하는 우리네 정서를 시인의 눈으로 들어올려 행간에 적고 있다. 가을 들녘과 초가지붕이 어우러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만약 고희가 살아 이 광경을 본다면 <해바라기>에 사용했던 황금빛을 듬뿍 캔버스에 찍어발랐으리라 추측하기도 하고, 백자의 빛깔을 응시하다가 문득 뜨물과 막걸리 그리고 젓빛을 차례로 떠올리며 향토내음에 취하기도 한다. 소금을 뿌린듯 하얀 메밀꽃, 하늘로 치솟은 초록빛 분수를 연상케 하는 대나무, 노란 물결의 망망대해를 이루는 유채..., 그 정겨운 색채들을 쓸어가버린 세월을 반추하고 나서 저자는 각박해진 현실을 향해 눈길을 돌린다.

“빛깔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살이에 운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명한 원색에는 여운이 없지 않습니까.”

썩쓸하게 말을 이어가는 저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빛깔이 ‘옥색’이라고 털어놓는다. 긴 겨울을 지나고 막 돌아나기



‘운동권’ 교수의 한판 삶의 이야기

《축구공 위의 수학자》
펴낸 강석진씨

탁월한 운동선수들과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 불리는 황윤성교수 등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우리들의 삶이 곧 멋진 한판의 운동경기에 비유될 수 있으며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조건 역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한 조건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다. 승부근성이 강하고 불같이 급하고 고집스럽고 욕심많은 것. 그가 제시하는 이러한 기질들은 분명 평범하고 모나지 않은 사람이 좋게 평가받는 우리 사회의 기준과는 다르다.

“청소년들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젊은이들이 이 사회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자신만이 지닌 색깔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 전력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웬만한 경기의 팀구성이며 스코어, 선수들의 개인 기록까지 줄줄이 꿰고 있는 그의 남다른 기억력, 수준급의 경기평과 선수평, 그리고 솔직담백하고 박진감 넘치는 문체로 그가 뿜어내고 있는 패기와 열기는 읽는 이에게 순식간에 유쾌하게 전염된다.

—박남정 기자

서울대 수학과와 젊은 교수 강석진(34)씨는 ‘운동권 교수’다. 개강 때나 교수회의 같은 특별한 모임이 없는 한 그는 언제라도 운동장에 뛰어나갈 수 있을 만한 차림으로 출근한다. 1주일에 한번 운동장에 나가 자연대 축구부를 지도하고 한 시사잡지에 스포츠 평론을 쓰고 있다. 볼 만한 경기는 빼놓지 않고 관람하고 스포츠신문과 관련잡지도 거의 다 본다. 그의 생활에서 스포츠는 빼놓을 수 없다. 삶이나 인간을 대하는 태도도 스포츠 정신에 힘입은 바 크다. 그가 최근 《축구공 위의 수학자》(석필)라는 책을 펴냈다.

“정말로 잘난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내보일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난체 한다’고 말하고 못견뎌하면서 집단의 힘을 빌어 그를 거꾸러뜨리고 맙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지요.”

강교수가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농구스타 허재선수가 ‘인성문제’라는 불합리하고 궁색한 이유로 대표팀에서 탈락한 ‘사건’이다. 그는 ‘허재’라는 운동 선수를 둘러싼 비이성적이며 보수적이고 편파적인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허위의식을 고발한다. 개인의 개성과 투지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는 도전도 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다.

이회택의 ‘택(澤)’, 차범근의 ‘범(範)’ 식으로 스포츠 기사를 읽기 위해 한자를 익히고, 축구공을 사기 위해 한달간 점심을 굶기로 ‘결단’을 내릴 만큼 축구에 골몰했던 어린시절을 털어놓는 것으로 출발하여 최동원, 황영조, 서동훈과 같은



